

삼수령 센터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99년 대천덕신부와 예수원 회원들이 삼수령목장에 특별한 수련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행되었다. 탄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태백지역은 1990년대에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게 된 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돕기위해 국회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림청 소유의 땅을 개인이나 단체가 개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고 그중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것이 지금의 강원랜드이다.

예수원은 삼수령목장이란 이름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넓은 면적의 땅을 목장 용도로 오래 전부터 임대해서 사용 중이었다. 대 천덕 신부와 예수원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게 된 후 여러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수련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나 진행은 결코 쉽지 않았다. 처음부터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대천덕신부는 예수원에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사용할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당시 예수원에서 살게 된 한 자매가 대천덕 신부님의 부친이며 1950년대 한국전으로 인해 수족절단이 된 사람들을 도왔던 루벤 아쳐 토리 2세의 전기를 읽은 후, 2000년 1월 모친 집을 방문 중에 신임 산림청장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를 읽게 된 것이다. 당시 임명된 신 순우 산림청장은 중학생이던 1954년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었으며, 그 기사에 의하면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에게 새 다리-의족을 주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은 자매는 그 기사를 신문에서 오려내어 예수원으로 가지고 왔고, 이 기사에서 자신도 오른 팔을 잃은 그 미국선교사가 대 신부님의 부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일로 인해 대 신부님과 신 순우 청장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신 순우 청장은 그 선교사의 이름이나 그에게 가족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가족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좋은 만남을 가진 후 작별하기 전 신 순우청장은 예수원에서 하는 대신부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 질문했다. 대 신부님은 예수원이 산림청으로 부터 임대받은 땅에 수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 중이라고 얘기하셨다. 신 청장은 대신부님에게 그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시점부터 삼수령 수련센터를 짓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도울수 있는 많은 분들을 보내 주셨다. 그 분들 중에는 이 센터의 첫 설계 디자인을 만들어 준 '원도시'건축의 변용 사장님과 같은 분도 포함된다. 이 원도시 건축은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회사 중 하나이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적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수련센터 신청서는 검토가 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2002년 5월 19일 오순절이자 예수원 설립 기념일 행사를 막 끝마칠 무렵 대천덕 신부가 넘어지면서 나무 벤치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일이 벌어졌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했지만 깊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슬프게도 2002년 8월 6일에 끝내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었다. 오순절에 넘어지시고 소천하시기까지 삼수령 수련센터 프로젝트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 아무도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삼수령 수련센터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감독하며 건축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의 크리스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대 천덕 신부의 아들 벤 토리 신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벤 신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예수원과 대

천덕 신부 가족과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던 지인 한 분이 벤 신부를 찾아와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인 현재인 사모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동산에 대해 오랜 시간 묵상을 해왔다고 했다. 에덴동산에서 발원해서 세계로 흘러 나가는 네 개의 강들이 있었지만 삼수령에서는 단지 세 개의 강들이 흘러 간다고 하였다. (삼수령센터의 명칭은 한강, 낙동강, 오십천이 통과 서, 그리고 남으로 흘러 나가는 분수점을 의미하는 '삼수점'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벤 신부는 즉각 삼수령에 '네번째강'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벤 신부는 또 그 네번째강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이 그 친구분이 현 재인 사모와 나누기를 원했던 메시지인데 삼수령센터는 북한관련 사역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북쪽으로 생명의 강을 흘러 보내는 발원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벤 신부는 그 분에게 약속한대로 현재인 사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 두 달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벤 신부에게 계속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벤과 리즈를 북한 개방의 때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부르고 계시고 삼수령센터에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벤 신부는 네번째강 프로젝트가 북한이 개방될 때를 위한 준비를 하는 프로젝트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003년 2월 벤 신부는 어머니 현 재인 사모와 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 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원 회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었다. 예수원 회원들은 그 때 벤 신부를 삼수령센터 건축을 위한 책임자로 결정하였다.

삼수령 청소년 수련센터를 건축하고 네번째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에 대해 마지막 승인을 다시 산림청으로부터 받기 위해 긴 여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예수원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 삼수령센터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많은 회원들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

산림청과 강원도, 태백시로부터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원의 몇몇 회원들과 목장 식구 몇 명은 이 프로젝트를 마음에 품고 북한 개방의 때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 수년간 예수원 본원과 목장에서 '북한 학교'와 '노동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학교들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에서 온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탈북새터민들과 함께 삼수령목장에서 땀 흘리며 같이 노동하고, 북한 선교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모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장과 삼수령센터의 건축을 후원해 주셨다. 그 당시 목장에 관리사를 세 채 지을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0월 31일에 땅을 축복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삼수령센터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기초 공사는 그때 했던 것이다. 다음 해 봄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2017년 6월에 벤 신부와 리즈 사모가 센터 건물에 입주하고 여름방학 동안 '생명의 강' 학교 교사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후 다른 팀 멤버들도 이사를 왔으며 그 해 동안 많은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갔다. 이 아름다운 새 건물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재정적 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흘린 땀으로 지어져 이제는 네번째강 프로젝트의 본부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일에 헌신한 식구들의 좋은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삼수령센터는 청소년 수련원의 첫번째 단계의 건물이며, 이곳은 기숙사, 도서관, 북한과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연구시설을 갖춘 훈련과 교육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강의와 세미나를 위한 공간과 방문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머물고 함께 토론 모임을 할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 센터에 남한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분단된 국가의 역사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는 장소 또한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몇 백명, 어쩌면 몇 천명이 되는 수 많은 후원자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린다. 같이 땀을 흘리고,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또는 쓰여졌는지 궁금해한다. 지난 2000 년도부터 들어온 후원액과 지출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여러분 중 이 프로젝트의 재정 상황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삼수령센터'에는 총 6 억원 가량 지출되었다. 삼수령목장의 관리자 세 채는 2 억원이 소요됐다. 건축의 다음 단계인 '공동체마을'을 위한 토목공사를 올해 안에 끝마치기를 원한다. 총 예상 금액은 약 4 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동체마을 건축을 내년부터 시작하려면 약 40 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공동체마을이 설립되면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네번째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학교와 기숙사가 마련되어지는 것이다.